

# 전주대 진찬호씨, '한식을 세계에 알리요'

## 이탈리아 정규 교과목 최초의 한식 강사로 나서며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

"요즘 셰프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중·일·양식 요리사가 대세잖아요. 그래도 저는 전통 한식 스토리를 입히고, 전 세계에 알리는 한식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전주대 진찬호씨(한식조리학과 3학년)가 최근 이탈리아 최초의 정규 한식 강사인 로마국립호텔조리고등학교 '펠레그리노 아르투시 한식 조리과정' 강사로 나서며 이탈리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펠레그리노 아르투시는 학생 1천 500명이 재학 중인 이탈리아 최대의 요리 전문학교이다. 이탈리아에 한식이 정규 강좌로 개설되어 한국 강사가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찬호씨는 이탈리아 조리고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불고기, 김밥, 잡채, 비빔밥 등 한국의 대표적 요리와 한식의 역사와 이론에 대해서 강의했다. 이탈리아에는 아직 한식이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로마와 밀라노 등지에 한식당이 생기면서 한식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정통 한식을 배우기 위해 수업을 찾았다.

진씨는 "처음 강의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중식과 일식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알아도 한식의 특징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김치가 발효했을 때 나는 냄새를 상한 걸로 착각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팔뚝수처럼 팔으로 만든 디저트를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그 모습 때문에 더 악착같이 한식 강의 준비를 하게 됐다"라고 회상하며 웃음을 지었다.

진씨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와 역사를 좋아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강의에서 한식의 역사와 그 뒷이야기를 강화했다. 가령 비빔밥에 왜 각기 다른 색상의 재료들이 담기는지, 음양오행설과 약식동원(藥食同源)에 기반 한 우리나라 음식 문화라든지



전주대 진찬호씨(한식조리학과 3학년)가 최근 이탈리아 최초의 정규 한식 강사인 로마국립호텔조리고등학교 '펠레그리노 아르투시 한식 조리과정' 강사로 나서며 이탈리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 학생의 강의 호응도도 매우 높았다.

강의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김밥을 코리아 스티프라고 불렀는데, 교육 후에는 김밥(Gimbap)이라고 정확한 발음과 함께 표기해 주고, 친구 생일 선물로 불고기를 만들어줬다고 자랑했을 때가 정말 뿌듯했었다"라고 말했다.

수업 전체가 이탈리아어로 진행되는 만큼 진씨의 부담감도 컸다. 수업마다 이탈리아어 통역사가 같이 들어오지만 한국 특유의 '들들쭉다', '노르스름하다', '조리다' 등의 애매한 표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진씨는 23살의 젊은 나이지만 2014년 한국음식관광협회 주관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한식분야의 실력자다. 또, 2018년 경창동계올림픽에서 CNN기자국 담당 셰프,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 이탈리아 전문 요리사를 대상으로 한식 강의를 진행할 만큼 한식을 사랑하고,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 분전 중이다.

진씨는 최근 모든 해외 일정을 마치고, 전주대 한식조리학과에서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정은성기자

### 남원시보건소, 편식 아동 영양관리 교육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최근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유아 206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편식하는 우리 아이의 영양관리'란 주제로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특히 맞벌이로 낮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해 오후 6시 30분 직장인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원거리(인월·운봉·이평·산내 지역) 대상자들에게는 교육장소를 이동해 인월면 보건지소에서 교육함으로써 많은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남원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620-7980~1)로 하면된다.

편식은 유아기에 다양한 음식을 접하지 못했을 경우, 부모님이 편식이 있을 경우, 식사시간이 행복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만큼 식사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매일 다양한 주제로 영양교육을 실시해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상자들이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 무주서, 내 고장 교통안전 가이드 교통사고 예방 홍보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27일 오전, '무주종합복지관'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 고장 교통안전 가이드로 활동 중인 적산과출소 김소연 순경이 강사로 나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 교육 홍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와 연계한 스토리카드를 활용해 무단횡단의 위험성, 야간 밝은 옷 입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통안전 홍보용품을 배부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윤종섭 서장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노인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며, "앞으로도 내 고장 교통안전 가이드의 수요자 중심 교육·홍보를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김제시 지평선봉사대, 추석 귀성객 맞이 무료 차(茶) 봉사에 나서

김제시 지평선봉사대(회장 김명숙)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무료 차(茶) 봉사에 나서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지평선봉사대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 중 추석 전날인 23일과 추석 다음날인 25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제역에서 고향 김제를 찾아주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이 담긴 차를 제공했으며 오는 10월 5일부터 김제 벽골제에서 펼쳐지는 김제지평선축제 홍보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평선봉사대는 지난 2005년부터 14년간 빠짐없이 명절 때마다 김제역에서 무료 차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무료 차(茶) 봉사에는 박준배 김제시장도 참여하여 봉사대와 함께 귀성객들에게 김제지평선축제 홍보 등 김제시정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남원소방서, 하반기 산악사고 인명구조훈련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남원소방서 인명구조훈련장서 소방서 구조대원 37명이 참여한 하반기 산악사고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악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대책으로, 훈련개요 설명 및 안전사고방지 교육, 산악사고 대응절차, 다목적구조삼각대 활용 인명구조훈련, 로프 구조방법, 산악사고 환자 응급처치 요령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외래강사(데라라컴퍼니 운영진 과장)를 초빙한 다목적구조삼각대를 활용한 훈련도 실시되었다.

김길수 구조대장은 "다목적구조삼각대를 이용해 구조바스켓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구조대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한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창서 청문실, 인권보호 추진 상황 점검·공유 토크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국가인권위 진정 및 권고 제로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보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경찰로 거듭나고자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을 중심으로 한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장과출소 김경성 경사는 "인권진단 토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때 인권에 대한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피해자를 포함한 민원인의 인권보호에 한걸음 더 다가가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청문감사실은 인권보호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존중과 배려에서부터 실천된다는 사실을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전하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된 만큼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인권보호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